

05 2027학년도 학과·계열

지역인재전형 — 누가 쓸 수 있나

사는 곳이 아니라 다닌 곳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누가 쓸 수 있나	3
03	무엇이 열리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경쟁률 7.8:1** — 전체 교과(9.0)·학종(12.4)보다 낮습니다
- ◆ **의약학은 9%뿐** — 나머지는 공학·인문·사회·자연입니다
- ◆ **사는 곳이 아니라 다닌 곳** — 「전 교육과정」이 걸림돌이 되는 자리
- ◆ **초본 한 장이면 해당 여부를 아십니다** · 확인 점검표 여덟

01 · 숫자부터

경쟁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지역인재는 의대 얘기 아닌가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해당되는데도 모르고 안 쓰는 학생**이 나옵니다. 숫자를 보시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세어 보았습니다.

무엇	얼마나
지역인재 전형 줄	582줄
모집 인원	5,398명
이 전형을 두는 대학	10곳
경쟁률 중앙값	7.8:1
그중 의약학·간호	9%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 — **의약학은 9%뿐입니다**. 나머지 91%는 공학·인문·사회·자연 계열입니다. 「**지역인재=의대**」는 뉴스가 의대만 다뤄서 생긴 오해입니다.

둘 — **경쟁률이 7.8:1로 낮습니다**. 전체 교과(9:1)·학종(12.4:1)보다 낮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면 확인 자체가 손해가 아닙니다**. 되면 큰 이득이고, 안 되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을 저희가 집계.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이며, 개별 대학·학과 값은 신지 않습니다.

02 · 누가 쓸 수 있나

사는 곳이 아니라 다닌 곳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는 「지금 어디 사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학교를 다녔는가」로 봅니다.

무엇을 보나	어떻게
고등학교 소재지	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해야 합니다
재학 기간	전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학교까지	의약학은 중학교부터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학생·보호자 거주를 함께 보는 곳이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이 걸림돌입니다. 고1을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전학 왔다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의약학은 조건이 더 셉니다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는 법으로 선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자격 요건도 엄격합니다. 중학교부터 그 지역에서 다녔는지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한 자리입니다. 경쟁 범위가 그 지역 학생으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서류로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이면 대개 확인됩니다. 초본에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옵니다. 기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서류를 떼어 보십시오 — 이사한 해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출처: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지역인재 지원자격 및 관계 법령. **요건은 대학·계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03 · 무엇이 열리나

계열이 넓습니다

지역인재 582줄이 어느 계열에 퍼져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계열	줄	무엇이 있나
자연	387	공학·자연과학·의약학·간호 — 가장 큼니다
인문	182	인문·사회·경영·교육
공동· 예체능	13	무전공·예체능

인문계도 182줄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과만 있는 것 아닌가」도 오해입니다.

어느 대학이 두나

10개 대학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그 지역 사립대가 중심**입니다. 수도권 대학에는 이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 **제도가 지역 대학을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남아서 대학을 다닐 생각이 있는가**」가 먼저이고, 그렇다면 **이 전형이 가장 넓은 문**입니다.

다른 전형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는 **수시 여섯 장 가운데 한 장**으로 씁니다. 같은 대학의 일반전형과 **함께 쓸 수 있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 한 대학에 두 장을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요강의 중복지원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계열 구분은 요강 표기를 따랐습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주민등록초본을 땀니다 — 주소 변동 포함	고3 여름 전
2	고등학교(필요하면 중학교)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같이
3	목표 대학 요강의 지역인재 자격을 읽습니다	요강 나온 뒤
4	애매하면 입학처에 물어봅니다	원서 전

4번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역인재 자격은 사례가 다양해서 요강 문장만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학, 검정고시, 해외 체류, 보호자 주소가 다른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입학처는 이런 문의를 늘 받습니다.

지역인재를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주민등록초본 을 떼어 주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고등학교 전 과정 을 그 지역에서 다녔는가
- ☐ 전학 이력 이 있다면 요강 조건에 맞는가
- ☐ 의약학이라면 중학교까지 보는지 확인했는가
- ☐ 보호자 거주 를 함께 보는 곳인지 보았는가
- ☐ 내가 볼 계열에도 지역인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 같은 대학 일반전형과 함께 쓸 수 있는지 보았는가
- ☐ 애매하면 입학처에 물어보았는가

첫째와 셋째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이사한 해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본은 정부24에서 바로 땀 수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인은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초본을 떼고 요강의 「지역인재 지원자격」 쪽을 읽으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삼십 분이면 하시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십 분을 안 해서 자격이 되는데 안 쓰는 학생이 해마다 나옵니다. 경쟁률 7.8:1 짜리 자리를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지역인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고1 때 다른 지역에서 다녔는데 안 되나요?

대학과 계열에 따라 다릅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졸업(예정)자」만 요구하면 됩니다. 이 한 줄 차이가 자격을 가릅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의 A대학은 되고 B대학은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한 곳에서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것으로 접지 마십시오.

의약학은 대체로 조건이 셉니다. 반대로 일반 계열은 험거운 곳이 많습니다. 계열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역인재로 가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입학 뒤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학과, 같은 수업, 같은 졸업장입니다. 학적에 전형이 남지만 성적표나 졸업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학 일부에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처럼 졸업 뒤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논의되고 시행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약학 지역인재에 지원하실 때는 「의무 복무 조건이 붙는 전형인지」를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 계열에는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지역인재는 의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쟁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초본 한 장이면 해당 여부를 아십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관계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인재 자격 요건은 대학·계열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개별 대학의 조건은 실지 않았으니 반드시 요강 원문과 입학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